

여자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분노반추의 이중매개효과*

유 지 은[†] 김 정 민[‡]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는 여자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과 폭식행동 간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분노반추의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및 비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 대학생 42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SPSS 26.0과 Process Macro 4.2를 활용하여 자료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과 폭식행동 간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은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자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과 폭식행동 간의 관계에서 분노반추는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자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과 폭식행동 간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분노반추는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여자 대학생의 폭식행동을 유발하는 환경적·심리적 요인의 구체적인 경로를 이해하고, 폭식행동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상담 장면에서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여자 대학생, 아동기 외상, 폭식행동, 거부민감성, 분노반추

* 본 논문은 유지은(2025)의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함.

† 제 1저자: 유지은, 명지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석사

‡ 교신저자: 김정민,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아동학부 아동학전공, (036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Tel: 02-300-0603, E-mail: jmkim122@mju.ac.kr

 Copyright © 2025, The Korean Society for Woman Psycholog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최근 몇 년 사이, 섭식장애로 치료를 받는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섭식장애 진료 인원은 2020년 9,474명에서 2023년 13,12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에만 8,058명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4;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이 중에서도 폭식장애 관련 진단을 받은 인원은 최근 5년간 약 64% 증가하여, 섭식장애 유형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5). 또한, 전체 섭식장애 환자 가운데 20대 여성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국민건강보험공단, 2025), 섭식장애가 특정 연령대와 성별에 편중된 정신건강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특정 성별과 연령대에서 섭식장애가 급증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섭식장애의 핵심 증상인 폭식행동의 개념과 임상적 특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폭식행동(Binge Eating Behavior)은 일정한 시간 내에 일반적인 식사량을 초과하는 음식을 섭취하고, 음식 섭취에 대한 조절 능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 같은 행동의 반복은 폭식장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부적절한 보상행동이 동반되면 신경성 폭식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폭식행동은 다양한 섭식장애 진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초진단적 증상으로, 임상 집단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생을 포함한 비임상 집단에서도 빈번하게 보고된다(APA, 2013; Peschel et al., 2024).

나아가, 폭식행동은 우울, 불안 등 다양한 정동장애와 높은 공병률을 보이며, 대인관계의 어려움, 학업 및 사회적 기능 저하, 신체 건강 악화, 자해 및 자살 위험 증가와도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다(APA, 2013; Brown et al., 2016; Serra et al., 2020). 실제 일상에서 많은 개인들이 폭식행동을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Marano et al., 2025), 반복될 경우 심리적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일상 기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Lavender et al., 2015). 이러한 결과는 폭식행동의 조기 발견과 임상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Stice et al., 2013).

특히, 20대 여성은 폭식행동에 취약한 집단으로 지목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5; Giel et al., 2022). 이 시기는 진로, 취업 문제나 대인관계 등 다양한 발달 과업에 직면하는 생애 전환기로서, 심리적 스트레스가 급증하는 시점이다(Riddle et al., 2024). 동시에 사회문화적으로 강조되는 외모 기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김동식, 2020), 이는 체중 조절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켜 섭식 및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지혜, 김은정, 2025).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스트레스와 발달적 요구는 음주, 흡연, 폭식행동과 같은 부적응적 대처행동을 유발하고, 이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Lanza et al., 2024; Lyzwinski et al., 2018). 이에 본 연구는 폭식행동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자 대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여자 대학생의 폭식행동 취약성은 발달적 특성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 폭식행동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심리적 문제로 이해되며(Dingemans et al., 2017; Vainik et al., 2019), 그중에서도 주요 환경적 요인으로 아동기 외상이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Burns et al., 2012; Caslini et al., 2016; Gilbert et al., 2009; Molendijk et al., 2017). 아동기 외상은 일회성 경험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전반적인 심

리적 기능에 만성적인 손상을 남기며,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친다(Fonzo & Nemeroff, 2024; Lacey & Ksinan, 2024).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폭식장애를 포함한 섭식장애 환자의 약 80%가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Fatimah et al., 2025). 더불어,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개인은 일반 성인보다 폭식행동과 같은 자기파괴적 행동에 빠질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홍채영, 김정민, 2021; Brewerton, 2022).

아동기 외상(Childhood Trauma)이란 아동이 감당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심리적·정서적 기능이 장기적으로 손상되는 상태를 의미한다(Allen, 2010). 이러한 아동기 외상은 주로 부모나 주양육자에 의한 방임과 학대의 형태로 발생하며(Pittner et al., 2019), 개인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Briere & Elliott, 2003; Ross et al., 2024).

앞서 살펴본 아동기 외상은 그 발생 양상에 따라 신체적·성적·정서적 학대와 신체적·정서적 방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APA, 2013). 기존 연구들은 주로 섭식 문제와 특정 학대 유형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이소민, 이지연, 2021; Meneguzzo et al., 2025), 아동기 외상의 모든 하위 유형을 포괄적으로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아동기 외상은 폭식행동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하나,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모든 개인이 폭식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아동기 외상에서 폭식으로 가는 직접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김용희, 2023)와 아동기 학대 경험이 신경성 폭식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이혜진, 2017;

Caslini et al., 2016; Molendijk et al., 2017) 등 상반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상반된 결과는 아동기 외상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과정에서 직접 경로뿐만 아니라, 심리적 매개 요인과 같은 중간 변인의 역할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기존 연구들은 폭식행동을 주로 정서 중심의 문제로 다루거나, 인지적 요인을 하나의 통합된 개념으로 접근해왔다. 그러나 인지는 정서의 발생과 조절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개인이 경험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에 따라 정서적 반응이 달라진다(Gross & Barrett, 2011). 따라서 폭식행동의 심리적 기제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인지적 변인을 내용적 차원과 과정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아동기 외상이 정서적 반응과 행동적 결과로 이어지는 경로를 다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폭식행동의 발생과 유지 및 조절에 있어 심리적 경로를 보다 면밀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먼저, 거부민감성(Rejection Sensitivity)은 정서 반응과 행동 간의 연결에서 핵심적인 인지적 내용 변인으로 작용한다. 구체적으로, 거부민감성은 타인의 반응을 해석하는 인지적 평가 과정에서 비롯된 인지적 내용 변인으로, 개인이 대인관계 상황에서 거부당할 것이라는 부정적 기대와 거부불안을 가지는 인지적 경향을 의미한다(Feldman & Downey, 1994; Preti et al., 2018). 이러한 인지적 내용은 개인의 주의 편향 및 해석 편향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결과적으로 부정적 정서 반응과 감정 억제 경향이 두드러진다(Gardner & Zimmer-Gembeck, 2020; Meehan et al., 2019; Richter et al., 2024).

이와 같은 경향은 폭식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특성으로 확인된 바 있다(Schell & Racine, 2023).

최근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과 거부민감성 간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밝혀냈다(배라영, 최지영, 2018; Bronstein et al., 2022).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개인은 타인의 거절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수용받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기대를 형성한다고 보고되었다(Mishra & Allen, 2023; Schulze et al., 2024). 또한, 최근 연구들에서 거부민감성과 섭식 및 폭식행동의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다(Bondü et al., 2020; Schell & Racine, 2023). 이러한 연구 결과는 거부민감성이 반복적인 폭식행동을 유발하거나 강화하는 주요 인지적 매개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이에 본 연구는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기 외상이라는 환경적 요인과 거부민감성이라는 인지적 내용 변인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인지적 내용 변인이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친 이후, 그 반응이 사고 수준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중요하다. 즉, 아동기 외상으로 인해 형성된 부정적 신념과 기대는 부적응적 인지 처리 과정인 분노반추(Anger Rumination)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Michl et al., 2013). 분노반추는 분노를 경험하는 동안이나 이후에 비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사고가 지속되는 인지적 과정을 의미한다(Ellis & Tafrate, 1997; Sukhodolsky et al., 2001). 기존 연구에 따르면, 아동기 외상으로 인한 정서적 손상이 분노반추라는 부적응적 인지 처리 전략을 통해 폭식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Selby et al., 2008).

이처럼 분노반추와 폭식행동은 상호작용적 관계를 보인다. 강한 반추 성향은 향후 폭식

행동을 예측하며, 반대로 폭식행동 역시 높은 수준의 반추를 유발할 수 있다(Lavender et al., 2015). 나아가, 폭식행동 자체가 부정적인 감정을 강화하고 반추를 자극함으로써 두 요소 간의 악순환적 경로가 형성될 수 있다(Palmieri et al., 2021; Wang & Borders, 2018). 특히,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은 거부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타인의 행동에 대해 대처방안을 모색하거나 맥락을 고려하는 등의 복잡하고 침착한 인지적 처리 과정이 어려울 수 있다(Berenson et al., 2009). 이들은 결과적으로 부적응적 인지 처리 과정으로 반추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김혜미, 이영순, 2023; 박지수, 김정민, 2020).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 부족하나, 기존 연구 결과들을 통해 이러한 연관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더불어, 반추는 거부민감성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지 외, 2018; 박지수, 김정민, 2020; Noda et al., 2022). 거부민감성은 아동기 외상과 같은 초기 부정적 대인관계 경험으로 인해 타인의 거절에 대한 기대불안이 형성되며 발달하는 선행적 인지 경향성으로, 외부 자극에 대한 초기 정서 반응을 유발한다(Berenson et al., 2009). 반면, 분노반추는 이러한 정서를 반복적으로 되새기며 지속시키는 인지 처리 전략으로 작용한다(김은지 외, 2018).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이라는 초기 경험을 기반으로 형성된 거부민감성이 분노반추로 이어지고, 다시 폭식행동으로 연결되는 인지적 매개 경로를 설정하였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여자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은 부정적 신념과 기대인 거부민감성을 형성하고, 이는 분노반추라는 인지적 과정을 거쳐 폭식행동을 유발하며 이를 지

속·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기 외상과 폭식행동 간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분노반추를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거부민감성과 분노반추의 개별 및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정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부민감성의 개별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둘째, 여자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노반추의 개별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셋째, 여자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부민감성과 분노반추의 이중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 대학생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44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본 연구의 목적, 절차 및 보상을 기술한 연구 설명문을 배부하였다. 개인 정보 수집 및 참여에 대한 자발적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설문이 진행되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는 언제든지 설문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익명성을 보장하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수집하지 않았고, 참여 전 과정이 자발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총 440부의 설문지(온라인)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하나 이상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18부를 제외한 총 422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

표 1.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분포 (N=422)

특성	집단	N	비율(%)
학년	1학년	73	17.3
	2학년	76	18.0
	3학년	84	19.9
	4학년	189	44.8
전공	인문계열	158	37.4
	사회과학계열	111	26.3
	자연계열	71	16.8
	이공계열	41	9.7
	예체능계열	41	9.7
거주지역	수도권	306	72.5
	비수도권	116	27.5

였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학년에 따른 분포는 총 422명 중 1학년 73명(17.3%), 2학년 76명(18.0%), 3학년 84명(19.9%), 4학년 189명(44.8%)으로 나타났다. 전공은 인문계열 158명(37.4%), 사회과학계열 111명(26.3%), 자연계열 71명(16.8%), 이공계열 41명(9.7%), 예체능계열 41명(9.7%)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따른 분포는 수도권 (44.8%)으로 나타났고, 전공은 인문계열 158명(37.4%), 사회과학계열 111명(26.3%), 자연계열 71명(16.8%), 이공계열 41명(9.7%), 예체능계열 41명(9.7%)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따른 분포는 수도권 306명(72.5%), 비수도권 116명(27.5%)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내용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측정도구

신경성 폭식증 검사 개정판(Bulimia Test Revised: BULIT-R)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폭식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Smith와 Thelen(1984)이 개발하고, Thelen, Farmer, Wonderlich와 Smith(1991)가 개정하여 윤화영(1996)이 번안한 신경성 폭식증 검사(Bulimia Test-Revised: BULIT-R)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체중조절 관련 행동을 측정하는 8개의 문항과 신경성 폭식증을 측정하는 28개의 문항이며,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원척도의 규준에 따르면, 82점 이상은 폭식행동 경향성을 보이며, 102점 이상은 신경성 폭식증 진단이 가능한 수준으로 간주된다(Thelen et al., 1991).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합치도는 .94였다.

아동기 외상(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CTQ)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을 측정하기 위해 Bernstein과 Fink(1986)가 개발한 아동기 외상 질문지(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CTQ)를 유재학, 박지선, 박두흠, 유승호와 하지현(2009)이 번안하고 타당화 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하위 요인으로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신체적 방임, 정서적 방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총 28문항 중 타당도 문항을 제외한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점=전혀 아니다, 5점=항상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기 외상 정도가 크다고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합치도는 .93이었다.

거부민감성(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RSQ)

본 연구는 대학생의 거부민감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Downey와 Feldman(1996)이 개발한 거부민감성 척도(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RSQ)를 이복동(2000)이 번안 및 타당화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응답자는 18개의 상황에서 각각 거부불안 및 수용기대를 보여주는 총 36개 문항에 응답한다.

본 척도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타인에게 요구를 하는 상황 18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6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다. 거부민감성 점수는 수용기대 문항의 역채점 후 각 쌍을 곱한 뒤,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18로 나눈 결

과를 사용한다. 이에 따라 점수는 최소 1점에서 최대 36점까지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거부에 민감한 경향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합치도는 .95로 나타났다.

분노반추(Anger Rumination Scale: K-ARS)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분노반추를 측정하기 위해 Sukhodolsky, Golub과 Cromwell(2001)이 개발한 분노반추 척도(Anger Rumination Scale: K-ARS)를 이근배와 조현춘(2008)이 번안하고 타당화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분노기억반추(8문항), 보복반추(5문항), 원인반추(3문항)라는 3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척도는 분노 사건에 대한 비의도적인 반복적 사고 경향성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4점 척도(1=거의 그렇지 않다, 2=가끔 그렇다, 3=보통 그렇다, 4=거의 언제나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다. 최소 4점에서 최대 64점까지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반추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합치도는 .93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최종 수집된 422부의 자료는 SPSS Statistic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Hayes(2013)의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적용하여 개별매개효과를 분석하였고, SPSS PROCESS Macro Model 6을 적용하여 이중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 95% 신뢰구간에서 5,000회 표본 추출을 진행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다음으로,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아동기 외상은 거부민감성($r=.60, p<.001$), 분노반추($r=.60, p<.001$), 폭식행동($r=.51, p<.001$)과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N=422)

변인	가능범위	최솟값 (Min)	최댓값 (Max)	평균(M)	표준편차 (SD)
폭식행동	36~180	42	159	93.77	25.39
아동기 외상	25~100	25	74	42.20	13.41
거부민감성	1~36	1	34	10.90	5.68
분노반추	16~64	16	64	36.99	11.51

표 3.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변인	1	2	3	4
1. 폭식행동	1			
2. 아동기 외상	.51***	1		
3. 거부민감성	.51***	.60***	1	
4. 분노반추	.57***	.60***	.63***	1

*** $p < .001$

여자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부민감성의 개별매개효과

여자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부민감성의 개별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개별매개효과 모형인 Model 4을 적용하여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아동기 외상이 거부민감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아동기 외상은 거부민감성을 약 37% 설명하였고, 아동기 외상이 거부민감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 = .60, p < .001$). 즉, 아동기 외상 정도가 높으면 거부민감성 정도도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기 외상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총 효과 검증 결과, 아동기 외상은 폭식행동을 약 34% 설명하였고, 아동기 외상이 폭식행동에 유의

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 = .47, p < .001$). 즉, 아동기 외상이 높으면 폭식행동도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기 외상뿐만 아니라 거부민감성까지 모형에 투입하여 폭식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아동기 외상과 거부민감성은 폭식행동을 약 40% 설명하였고, 아동기 외상($\beta = .28, p < .001$)과 거부민감성($\beta = .31, p < .001$) 폭식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아동기 외상과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폭식행동은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전반적인 변인 간의 영향 관계가 유의했기에, 아동기 외상이 거부민감성을 매개하여 폭식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를 도출하고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결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4. 아동기 외상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부민감성의 개별매개효과

경로	B	Boot S.E.	β	t	Boot LLCI	Boot ULCI	R ² (F)
아동기 외상 → 거부민감성	0.25	.02	.60	15.06***	.22	.29	.37(39.99***)
아동기 외상 → 폭식행동	0.89	.08	.47	11.57***	.74	1.04	.34(35.42***)
아동기 외상 → 폭식행동	0.54	.09	.28	5.91***	.36	.72	.40(39.25***)
거부민감성 → 폭식행동	1.38	.21	.31	6.44***	.96	1.80	

*** $p < .001$

표 5. 아동기 외상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부민감성의 개별매개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

간접효과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아동기 외상 → 거부민감성 → 폭식행동	.18	.03	.12	.2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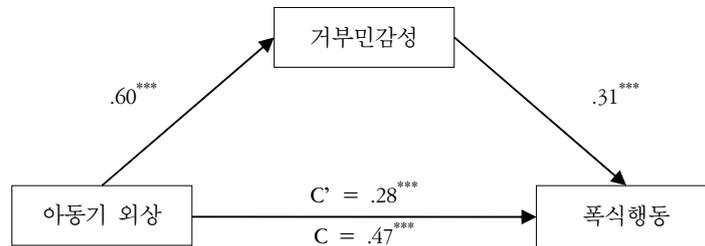
아동기 외상이 거부민감성을 매개하여 폭식 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는 .18 이었고, 이의 95% 신뢰구간은 .12~.25로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았다. 즉, 아동기 외상이 거부민감성을 매개하여 폭식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아동기 외상과 폭식행동 사이에서 거부민감성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앞서 아동기 외상은 거부민감성은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과에

대한 모형을 그림 1로 제시하였다.

여자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노반추의 개별매개효과

여자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노반추의 개별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개별매개효과 모형인 Model 4을 적용하여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 $p < .001$

그림 1. 아동기 외상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부민감성의 개별매개효과

표 6. 아동기 외상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노반추의 개별매개효과

경로	B	Boot S.E.	β	t	Boot LLCI	Boot ULCI	R ² (F)
아동기 외상 → 분노반추	0.52	.03	.60	15.22***	.45	.58	.37(40.05***)
아동기 외상 → 폭식행동	0.89	.08	.47	11.57***	.74	1.04	.34(35.42***)
아동기 외상 → 폭식행동	0.42	.09	.22	4.81***	.25	.60	.44(47.04***)
분노반추 → 폭식행동	0.90	.10	.41	8.81***	.70	1.09	

*** $p < .001$

여자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이 분노반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아동기 외상은 분노반추를 약 37% 설명하였고, 아동기 외상이 분노반추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 = .60, p < .001$). 즉, 아동기 외상 정도가 높으면 분노반추 정도도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기 외상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총 효과를 검증한 결과, 아동기 외상은 폭식행동을 약 34% 설명하였고, 아동기 외상이 폭식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 = .47, p < .001$). 즉, 아동기 외상 정도가 높으면 폭식행동 정도도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분노반추까지 모형에 투입하여 폭식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아동기 외상과 분노반추는 폭식행동을 약 44% 설명하였고, 아동기 외상은 폭식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beta = .22, p < .001$), 분노반추도 폭식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 = .41, p < .001$). 즉, 아동기 외상과 분노반추가 높을수록 폭식행동은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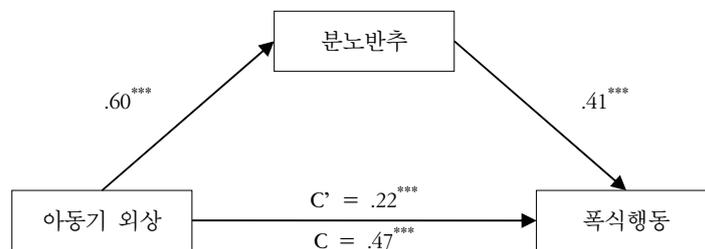
전반적인 변인 간의 영향 관계가 유의했기에, 아동기 외상이 분노반추를 매개하여 폭식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를 도출하고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결과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아동기 외상이 분노반추를 매개하여 폭식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는 .24였고, 이의 95% 신뢰구간은 .17~.32로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았다. 즉, 아동기 외상이 분노반추를 매개하여 폭식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아동기 외상과 폭식행동 사이에서 분노반추는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앞서 아동기 외상은 폭식행동에 직접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기에, 아동기 외상과 폭식행동 사이에서 분노반추는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과에 대한 모형을 그림 2로 제시하였다.

표 7. 아동기 외상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노반추의 개별매개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

간접효과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아동기 외상 → 분노반추 → 폭식행동	.24	.04	.17	.32

*** $p < .001$



*** $p < .001$

그림 2. 아동기 외상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노반추의 개별매개효과

여자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부민감성과 분노반추의 이중매개효과

여자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부민감성과 분노반추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이중매개효과 모형인 Model 6을 적용하여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아동기 외상은 거부민감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아동기 외상은 거부민감성을 약 37% 설명하였고, 아동기 외상이 거부민감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60, p<.001$). 즉, 아동기 외상 정도가 높으면 거부민감성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기 외상과 거부민감성이 분노반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아동기 외상과 거부민감성은 분노반추를 약 48% 설명하였고, 아동기 외상이 분노반추에 유의한 정적 영향($\beta=.35, p<.001$), 거부민감성은 분노반추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42, p<.001$). 즉, 아동기 외상 정도가 높으면 분노

반추 정도도 높고, 거부민감성 정도가 높으면 분노반추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기 외상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총 효과를 검증한 결과, 아동기 외상은 폭식행동을 약 34% 설명하였고, 아동기 외상이 폭식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47, p<.001$). 즉, 아동기 외상 정도가 높으면 폭식행동 정도도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기 외상, 거부민감성, 분노반추가 폭식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약 46%로 증가하였고, 아동기 외상은 폭식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beta=.17, p<.001$), 거부민감성은 폭식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beta=.17, p<.001$), 분노반추는 폭식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beta=.34, p<.001$)을 미쳤다. 즉, 아동기 외상, 거부민감성, 분노반추가 높을수록 폭식행동 정도도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전반적인 변인 간의 영향 관계가 유의했기에, 아동기 외상이 거부민감성과 분노반추를 이중으로 매개하여 폭식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를 도출하고 부트스트랩 결과를 확인

표 8. 아동기 외상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부민감성과 분노반추의 이중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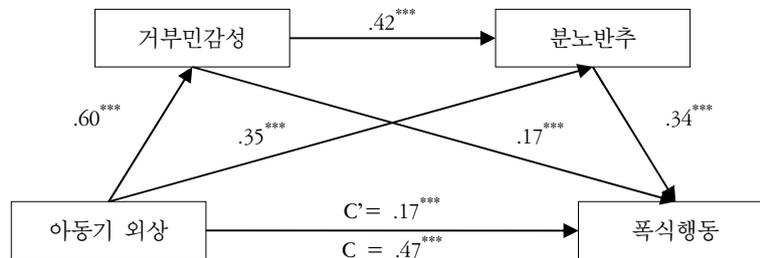
경로	B	Boot S.E.	β	t	Boot LLCI	Boot ULCI	R ² (F)
아동기 외상 → 거부민감성	0.25	.02	.60	15.06***	.22	.29	.37(39.99***)
아동기 외상 → 분노반추	0.30	.04	.35	7.86***	.23	.38	.48(54.38***)
거부민감성 → 분노반추	0.85	.09	.42	9.45***	.68	1.03	
아동기 외상 → 폭식행동	0.89	.08	.47	11.57***	.74	1.04	.34(35.42***)
아동기 외상 → 폭식행동	0.31	.09	.17	3.39***	.13	.50	
거부민감성 → 폭식행동	0.75	.22	.17	3.33***	.31	1.19	.46(43.55***)
분노반추 → 폭식행동	0.74	.11	.34	6.68***	.52	.96	

*** $p<.001$

표 9. 아동기 외상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부민감성의 개별매개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

간접효과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총 간접효과	.30	.04	.23	.38
아동기 외상 → 거부민감성 → 폭식행동	.10	.04	.02	.18
아동기 외상 → 분노반추 → 폭식행동	.12	.03	.06	.17
아동기 외상 → 거부민감성 → 분노반추 → 폭식행동	.08	.02	.05	.13

*** $p < .001$



*** $p < .001$

그림 3. 여자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부민감성과 분노반추의 이중매개효과

하였고, 그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아동기 외상이 거부민감성을 매개하여 폭식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는 .10이었고, 이의 95% 신뢰구간은 .02~.18로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았다. 아동기 외상이 분노반추를 매개하여 폭식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는 .12였고, 이의 95% 신뢰구간은 .06~.17로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았다. 아동기 외상이 거부민감성과 분노반추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폭식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는 .08이었고, 이의 95% 신뢰구간은 .05~.13으로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았다. 즉, 아동기 외상과 폭식행동 사이에서 거부민감성과 분노반추는 개별적으로 유의한 매개역할을 하고, 거부민감성과 분노반추가 이중으로도

유의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가지 간접효과를 합산한 총 간접효과 크기는 .30이었고, 이의 95% 신뢰구간은 .23~.38로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아동기 외상은 폭식행동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아동기 외상이 높으면 매개변인인 거부민감성과 분노반추를 높이면서 간접적으로 폭식행동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과에 대한 최종 모형을 그림 3으로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여자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이 폭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부민감성과 분노반추의 개별 및 이중매개효과를 살펴보았으며,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토대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부민감성이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대학생이 아동기 외상 경험이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토대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부민감성이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대학생이 아동기 외상 경험이 많을수록 거부민감성 수준 또한 유의하게 높아졌고, 이는 다시 폭식행동에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변인 간 관계를 직접적으로 실증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나, 유사한 개념들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메타분석에서는 아동기 학대 경험이 신경성 폭식증과 강력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으며(Caslini et al., 2016; Molendijk et al., 2017), 최근 연구들에서도 아동기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폭식장애 및 폭식행동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Amiri & Sabzehparvar, 2024; Friedman et al., 2023). 아울러 국내 연구를 통해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된 바 있다(이혜진, 2017). 또한, 애착이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정서적 섭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혜미, 이영순, 2023)는 본 연구의 매개모형과 유사한 경로를 제시하며, 본 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애착관계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정서적 거부는 아동기 외상의 한 형태로 작용하며, 이는 이후 대인관계

에서 사회적 신호를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인지적 편향인 거부민감성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거부민감성은 섭식병리 전반과 밀접하게 연관된 인지적 특성으로 확인되었다(Schell & Racine, 2023). 이는 폭식행동이 단순한 식행동 문제가 아니라, 인지적 편향 과정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부 지지한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은 자신이 타인에게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기대를 지속하며, 이는 자기 가치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합리적 신념으로 발전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인지적 왜곡은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개인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폭식행동에 대한 인지적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둘째, 여자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노반추가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외상이 단순한 과거의 정서적 경험으로 머무는 것이 아닌, 분노에 대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사고 경향이라는 인지적 과정 양식으로 고착되어, 성인기에도 부적응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아동기 정서적 외상을 경험한 개인은 성인기에도 분노반추 성향을 강하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박지수, 김정민, 2020)는 본 연구의 경로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특히 분노반추는 정서적 고통을 내면화하며 해소되지 못한 감정을 반복적으로 활성화시켜, 그 결과로 폭식행동과 같은 자기파괴적 대처전략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반추 사고가 섭식장애의 핵심 인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기존 연구들(Palmieri et al., 2021; Selby et al., 2008; Wang & Borders, 2018)과 유사한 맥

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개인은 부적응적 인지 과정인 반추를 통해 폭식행동이 유지·강화되는 악순환에 놓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여자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부민감성과 분노반추는 이중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기 외상은 먼저 거부민감성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분노반추를 매개하여 폭식행동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경로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외상이 인지적 내용과 인지적 과정이라는 두 가지 차원의 심리적 요인을 통해 부적응적 행동인 폭식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일수록 타인의 반응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이에 따른 분노반추를 반복적으로 보이는 경향이 높다는 선행연구(박지수, 김정민, 2020)는 본 연구의 경로를 일부 뒷받침한다. 또한, 분노반추는 공격적인 외현행동뿐만 아니라 폭식행동과 같은 부적응적인 대처양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Wakeford & Statham, 2018), 분노반추의 감소가 폭식장애 치료에 효과적이었다는 연구(Hassanzadeh & Mansouri, 2022)는 폭식행동 치료 개입에 있어 분노반추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특히 복합외상이나 아동기 정서적 외상을 경험한 개인들이 성인기에도 분노반추 성향을 강하게 유지한다는 선행연구들(박지수, 김정민, 2020; Burnette et al., 2007; Tedeschi & Calhoun, 2006)은 본 연구에서 확인된 이중매개 경로의 이론적 타당성을 지지한다.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과 폭식행동 간의 관계를 단순한 정서적 연쇄로 보지 않고, 인지적 내용 변인인 거부민감성과 인지적 과정 변인인 분노반추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으로써 폭식행동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거부민감성과 분노반추는 각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양식으로 상호작용하여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경로를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폭식행동의 유병률이 가장 높고 심리적 취약성이 큰 여자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아동기 외상의 경험과 함께 거부민감성, 분노반추와 같은 인지적 특성을 평가 및 개입의 핵심 요인으로 제시함으로써 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결론적으로, 아동기 외상 경험이 있는 내담자를 위한 폭식행동 개입에서는 거부민감성 및 분노반추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인지·정서 기반의 전략이 예방과 치료 모두에 있어 핵심적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여자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이 폭식행동에 이르는 심리적 경로를 규명하고자, 거부민감성과 분노반추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폭식행동의 발생 메커니즘을 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을 연계하여 구체화하였으며, 특히 인지적 내용과 과정의 구분을 통해 아동기 외상이 장기적으로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을 단순히 환경적 요인이나 정서적 문제로 제한하지 않고, 그로 인해 유발되는 폭식행동에 이르는 과정을 인지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접근하였다. 특히 인지적 매개변인을 내용과 과정으로 구분하여 이론적 틀을 확장함과 동시에, 편향된 인지적 내용 요인과 인지적 과정 요인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복합적인 관계를 반영하여 다차원적 설명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는 폭식행

등을 설명하는 데 있어, 아동기 외상 경험의 인지적 처리 과정을 통합적으로 조명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폭식행동을 나타내는 내담자에게 아동기 외상, 거부민감성과 분노반추를 통합적으로 다룰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 인지행동치료(CBT)의 구체적 개입 전략을 제안하였다. 아동기 외상은 과거 경험에 대한 재해석과 인지 처리 기법을 통해 개입할 수 있으며, 인지재구조화를 통해 폭식행동 경향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인지행동치료는 폭식 관련 장애의 치료에 있어 효과가 입증된 대표적인 치료법이다(홍채영, 김정민, 2021; Fairburn & Cooper, 2021). 이는 폭식행동을 나타내는 내담자에게 편향적 인지 내용과 부적응적인 인지 과정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인지행동치료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반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임상적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임상집단에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이 존재한다. 임상군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경우에는 다양한 공병의 문제로 인해 비임상군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향후 임상집단이나 준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응답자의 방어적 반응이나 사회적 수용 가능성으로 인해 일부 변인의 평가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폭식행동을 경험하는 여자 대학생의 경우, 자신의 부적응적 행동을 노출하는 데 심리적 저항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해당 행동을 포함한 주요 변인들에 대해 과소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심층 면담, 행동 관찰, 생리적 지표 등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 설계를 통해 변인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으나, 이러한 설계는 변수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설계를 활용하여 아동기 외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고, 발달적 경로와 인과관계를 보다 정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폭식행동이 성 특징적이라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 대상을 여자 대학생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에서 남성에게서도 폭식행동 나타나며, 그 동기나 양상이 성별에 따라 상이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남성을 포함해 성별에 따른 폭식행동의 양상과 관련 변인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성차에 기반한 보다 정교한 개입 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 섭식장애 성병 진료 인원 점유율 및 연령별 진료 인원 점유율. 전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 김동식 (2020). 우리사회의 성별화된 외모 고정관념과 외모강박 실태. ISSUE PAPER, 2020(1), 1-13.
- 김소정, 김지혜, 윤세창 (2010). 한국판 반추적 반응 척도(K-RRS)의 타당화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9(1), 1-19.

- 김용희 (2023). 아동기외상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강박성과 부정조급성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30(10), 85-108.
- 김은지, 이은샘, 현명호 (2018). 거절민감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반추와 사회적 회피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1), 187-207.
- 김지혜, 김은정 (2025). 20대 여성의 외모 조건부 자기가치감이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외모 비교, 신체 불만족의 순차매개효과 및 외모 관련 슛폼 이용 특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30(3), 553-575.
- 김후남, 정현희 (2018). 청소년의 초기 외상경험과 우울의 관계: 거부민감성, 사회적 위축, 대인관계 문제의 순차적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8(3), 247-265.
- 김혜미, 이영순 (2023). 20~30대 여성의 불안 및 회피애착이 정서적 섭식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 우울반추,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재활심리연구*, 30(2), 105-124.
- 박지수, 김정민 (2020).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대학생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분노반추의 이중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6(2), 191-208.
- 오지연, 이주영 (2025). SNS 외모 관련 사진 활동이 20대 여성의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대상화와 내수용자각의 순차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30(1), 73-101.
- 유재학, 박지선, 박두흠, 유승호, 하지현 (2009). 한국판 아동기 외상 질문지의 타당화: 상담 및 치료적 개입에서의 활용.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3), 563-578.
- 이소민, 이지연 (2021). 성인 여성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이 이상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 신체자비와 신체수치심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2(3), 79-100.
- 이혜진 (2017). 아동기 학대가 신경성 폭식증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마음챙김의 완충적 조절효과. *인지행동치료*, 17(3), 445-467.
- 허다원, 조성근 (2024).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초기 성인기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와 탈중심화의 조절된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24(3), 363-385.
- 홍채영, 김정민 (2021). 아동·청소년기 대인외상경험이 있는 폭식장애경향 성인 여성을 위한 이미지 재구성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인지행동치료*, 21(4), 503-536.
- Allen, J. G. (2010). *Mentalizing in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attachment trauma*. Karnak Books.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5th ed.* Arlington, VA: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 Amiri, S., & Sabzehparvar, M. (2024). Childhood maltreatment and the risk of eating disorders: A meta-analysis of observational studies. *Neuropsychiatrie*, 39(1), 36-46.
- Berenson, K. R., Gyurak, A., Ayduk, O., Downey, G., Garner, M. J., Mogg, K., Bradley, B. P., & Pine, D. S. (2009). Rejection sensitivity and disruption of attention by social threat cu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6), 1064-1072.
- Brewerton, T. D., Gavidia, I., Suro, G., & Perlman, M. M. (2022). Eating disorder onset

- during childhood is associated with higher trauma dose, provisional PTSD, and severity of illness in residential treatment.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30(3), 267-277.
- Burns, E. E., Fischer, S., Jacks on, J. L., & Harding, H. G. (2012). Deficits in emotion regulation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abuse and later eating disorder symptoms. *Child Abuse & Neglect*, 36(1), 32-29.
- Brown, K., Berkman, N., Peat, C., Lohr, K., Cullen, K. et al. (2016). Binge eating disorder in adults.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65(6), 409-420.
- Bronstein, M. V., Everaert, J., Kummerfeld, E., & Joormann, J. (2022). Biased and inflexible interpretations of ambiguous social situations: Associations with eating disorder symptoms and socioemotional functio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55(5), 678-690.
- Burnette, J. L., Taylor, K. W., Worthington, E. L., & Forsyth, D. R. (2007). Attachment and trait forgivingness: The mediating role of angry rumin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8), 1585-1596.
- Bondü, R., Bilgin, A., & Warschburger, P. (2020). Justice sensitivity and rejection sensitivity as predictors and outcomes of eating disorder pathology: A 5 year longitudi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53(4), 556-566.
- Caslini, M., Bartoli F., Crocamo, C., Dakanalis, A., Clerici, M., & Carra, G. (2016). Disentangling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 abuse and eating disorder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sychosomatic Medicine*, 78(1), 79-90.
- Dingemans, A., Danner, U., & Parks, M. (2017). *Emotion regulation in binge eating disorder: A review. Nutrients*, 9(11), 1274. <https://doi.org/10.3390/nu9111274> (pp. 1-14)
- Downey, G., & Feldman, S. I.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327-1343.
- Ellis, A., & Tafrate, R. C. (1997). *Anger: How to live with and without it*. New York: Citadel Press.
- Fairburn, C. G., & Cooper, Z. (2021).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for eating disorders: A transdiagnostic theory and treatment.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17, 233-256. <https://doi.org/10.1007/s10567-025-00548-0>
- Fatimah, A., Hodge, R., & Cobham, V. E. (2025). Prevalence, aetiology and treatment of comorbi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eating disorders in children and young people: A systematic review.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28(2), 145-167.
- Feldman, S., & Downey, G. (1994).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adult attachment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1), 231-247.
- Fonzo, G. A., & Nemeroff, C. B. (2024). The long shadow of early-life adversity: Adult reward circuit signatures of maternal attention in infancy. *Biological Psychiatry*, 96(2), 102-111.
- Friedman, J. K., Yoon, C. Y., Emery Tavernier, R. L., Mason, S. M., & Neumark-Sztainer, D. (2023). Associations of childhood maltreatment

- with binge eating and binge drinking in emerging adult women. *Preventive Medicine Reports*, 33, Article 102217.
<https://doi.org/10.1016/j.pmedr.2023.102217>
- Gardner, A. A., & Zimmer-Gembeck, M. J. (2020). A longitudinal model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internalizing symptoms: Testing emotion regulation deficits as a mechanism and outcome. *Journal of Personality*, 88(5), 934-951.
- Gascoigne, M., Spirou, D., & Catania, J. (2023). Loss of control as a transdiagnostic feature in obesity related eating behaviours: A systematic review.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31(1), 24-40.
- Giel, K. E., Bulik, C. M., Fernandez-Aranda, F., Hay, P., Keski-Rahkonen, A., Schag, K., Schmidt, U., & Zipfel, S. (2022). Binge eating disorder. *Nature Reviews Disease Primers*, 8, Article 16.
<https://doi.org/10.1038/s41572-022-00344-y>
- Gilbert, R., Widom, C., Browne, K., Fergusson, D., Webb, E., & Janson, S.(2009). Burden and consequences of child maltreatment in high-income countries. *The Lancet*, 373(96), 68-81.
- Gross, J. J., & Barrett, L. F. (2011). Emotion generation and emotion regulation: One or two depends on your point of view. *Emotion Review*, 3(1), 8-16.
- Hassanzadeh, M. R., & Mansouri, A. (2022). Effectiveness of Schema Therapy on Anger Rumination and Aggression in Men with Binge Eating Disorder. *Journal of Research in Behavioural Sciences*, 20(1), 1-8.
- Lacey, R., & Ksinan, A. (2024). Genetic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child adjustment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65(4), 481-492.
- Lanza, H. I., Waller, K., & Sevillano, L. (2024). Bidirectional relationships between nicotine vaping and maladaptive eating behaviors among young adults. *Addictive Behaviors Reports*, 19, 100550.
- Lavender, J. M., Wonderlich, S. A., Engel, S. G., Gordon, K. H., Kaye, W. H., & Mitchell, J. E. (2015). Dimensions of emotion dysregulation in anorexia nervosa and bulimia nervosa: A conceptual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Clinical Psychology Review*, 40, 111-122.
- Lyzwinski, L. N., Caffery, L., & Bambling, M.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maladaptive weight-related behaviors in college students: A review of the literature. *Americ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49(3), 155-164.
- Marano, G., Napolitano, D., Capristo, E., & Traversi, G. (2025). The body as a battlefield: Identity development and psychosomatic expression in eating disorders across childhood and adolescence. *Children*, 12(11), 1465.
<https://doi.org/10.3390/children12111465>
- Meehan, K. B., Cain, N. M., Roche, M. J., & Clarkin, J. F. (2019). Rejection sensitivity and self-regulation of daily interpersonal events. *Journal of Contemporary Psychotherapy*, 49(3), 157-166.
- Meneguzzo, P., De Mico, A., Maragno, L., Marzotto, A., Conti, F., Maggi, L., Mezzani, B., & Todisco, P. (2025). Childhood adversity

- and empathy in eating disorders: Exploring transdiagnostic profiles and socio-emotional functioning. *Child Abuse & Neglect*, 164, 107445.
<https://doi.org/10.1016/j.chiabu.2025.107445>
- Michl, L. C., McLaughlin, K. A., Shepherd, K., & Nolen-Hoeksema, S. (2013). Rumination as a mechanism linking stressful life events to symptoms of depression and anxie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2(2), 339-352.
- Mishra, M., & Allen, M. S. (2023). Rejection sensitivity and romantic relationship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5, 112072.
<https://doi.org/10.1016/j.paid.2023.112186>
- Molendijk, M. L., Hoek, H. W., Brewerton, T. D., & Elzinga, B. M. (2017). Childhood maltreatment and eating disorder pathology: A systematic review and dose-response meta-analysis. *Psychological Medicine*, 47(8), 1402-1416.
- Moulds, M. L., Kandris, E., Starr, S., & Wong, A. C. M. (2020). Repetitive negative thinking and psychological disorders: Theoretical underpinnings and treatment implications. *Clinical Psychology Review*, 77, 101867.
- Noda, S., Masaki, M., Kishimoto, T., & Kaiya, H. (2022).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on the development of anxious-depressive attack in Japanese outpatients: The mediating roles of rumination, social anxiety, and depressive symptoms. *Frontiers in Psychology*, 13, Article 1016879.
<https://doi.org/10.3389/fpsyg.2022.1016879>
- Palmieri, S., Mansueto, G., Scaini, S., Caselli, G., Sapuppo, W., Spada, M. M., Sassaroli, S., & Ruggiero, G. M. (2021). Repetitive Negative Thinking and Eating Disorders: A Meta-Analysis of the Role of Worry and Rumination. *Journal of Clinical Medicine*, 10(11), 2448.
- Peschel, S. K. V., Sigrist, C., Voss, C., Fürstjes, S., & Dziobek, I. (2024). Subclinical patterns of disordered eating behaviors in the daily life of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from the general populatio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nd Mental Health*, 18, Article 52.
<https://doi.org/10.1186/s13034-024-00752-w>
- Pittner, K., Van Ijzendoorn, M. H., Alink, L. R. A., et al. (2019). The genetic and environmental etiology of child maltreatment in a parent-based extended family desig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1(3), 1127-1143.
- Preti, E., Fontana, A., De Panfilis, C., Casini, E., & Marchesi, C. (2018). Rejection sensitivity and psychopathology symptoms in early adolescence: The moderating role of personality organization. *Journal of Adolescence*, 68, 174-183.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18.05.012>
- Richter, M., Kouri, G., Meuwly, N., & Schoebi, D. (2024). Reject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Does rejection sensitivity modulate emotional responses to perceptions of negative interactions? *BMC Psychology*, 12(31).
<https://doi.org/10.1186/s40359-024-01864-w>
- Riddle, D. B., Hertz, A., & Storch, E. A. (2024). *Managing stress as an emerging adult*. In *Care of*

- Adults with Chronic Childhood Conditions* (pp. 229-241). Springer.
- Ross, A. G., Giri, S., Anyasodor, A. E., Mahmood, S., et al. (2024).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leading to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 case report. *BMC Psychiatry, 24*, Article 390.
<https://doi.org/10.1186/s12888-024-06307-9>
- Schell, S. E., & Racine, S. E. (2023). Reconsidering the role of interpersonal stress in eating pathology: Sensitivity to rejection might be more important than actual experiences of peer stress. *Appetite, 188*, 106688.
<https://doi.org/10.1016/j.appet.2023.106588>
- Schulze, A., Rommelfanger, B., Schendel, E., & Biskup, J. (2024). You say it's not me: The influence of offering external explanations of rejection and acceptance behavior on the perception of benevolence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Emotion Dysregulation, 11*(1), Article 11.
<https://doi.org/10.1186/s40479-024-00275-y>
- Selby, E. A., Anestis, M. D., & Joiner, T. E. (2008). Understanding the Emotional Cascade Model: The role of rumination in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dysregulation and behavioral dysregulation.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46*(5), 593-611.
- Serra, R., Kiekens, G., & Vanderlinden, J. (2020). Binge eating and purging in first year college students: Prevalence, psychiatric comorbidity, and academic perform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53*(3), 428-437.
- Stice, E., Marti, C. N., & Rohde, P. (2013). Prevalence, incidence, impairment, and course of the proposed DSM-5 eating disorder diagnoses in an 8-year prospective community study of young wom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2*(2), 445-457.
- Sukhodolsky, D. G., Golub, A., & Cromwell, E. N. (200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anger rumination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5), 689-700.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6). Expert companions: Posttraumatic growth in clinical practice. In L. G. Calhoun & R. G. Tedeschi (Eds.), *Handbook of posttraumatic growth: Research and practice*(pp. 291-310).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https://doi.org/10.4324/9781315805597-19>
- Turton, R., Chami, R., & Treasure, J. (2017). Emotional eating, binge eating and animal models of binge-type eating disorders. *Current Obesity Reports, 6*(2), 217-226.
- Vainik, U., García-García, I., & Dagher, A. (2019). Uncontrolled eating: A unifying heritable trait linked with obesity, overeating, personality and the brain. *European Journal of Neuroscience, 50*(3), 2430-2445.
- Wakeford, G., Kannis Dymand, L., & Statham, D. (2018). Anger rumination, binge eating, and at risk alcohol use in a university sample.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70*(3), 269-276.
- Wang, S. B., & Borders, A. (2018). The unique effects of angry and depressive rumination on eating-disorder psychopathology and the mediating role of impulsivity. *Eating behaviors, 29*, 41-47.

<https://doi.org/10.1016/j.eatbeh.2018.02.004>

- Wonderlich, S. A., Mitchell, J. E., Crosby, R. D., Myers, T. C., Kadlec, K., Lahaise, K., & Swan-Kremeier, L. (2007). Childhood trauma and bulimia nervosa: A role for dissociat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40*(5), 396-403.
- Zimmer-Gembeck, M. J., Nesdale, D., Webb, H. J., Khatibi, M., & Downey, G. (2016). A longitudinal rejection sensitivity model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Unique roles of anxiety, anger, blame, withdrawal and retribut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4*(7), 1291-1307.

1차원고접수 : 2025. 11. 07.

심사통과접수 : 2025. 12. 16.

최종원고접수 : 2025. 12. 30.

The Effects of Childhood Trauma on Binge Eating Behavior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The Double Mediation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Anger Rumination

Yoo JJeun Kim Jungmin
Myongji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anger rumin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binge eating behavior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A total of 422 female college students enrolled in universities located in both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participated in an online surve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6.0 and PROCESS Macro 4.2.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rejection sensitivity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binge eating behavior. Second, anger rumination also partially mediated this relationship. Third, rejection sensitivity and anger rumination sequen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binge eating behavior, indicating a significant dual mediation effect.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vides a more detailed understanding of the environmental and psychological pathways that lead to binge eating behavior in female college students and discusses practical implications for counseling interventions designed to address such maladaptive eating behaviors.

Key words : Female college students, Childhood trauma, Binge eating behavior, Rejection sensitivity, Anger rumination